



## 총회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보고

제103회기 총회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종혁

서 기 진용훈

### 1. 조직

- 위 원 장 : 김종혁
- 위 원 : 최우식 이대봉 박창식 최효식 장봉생 맹일형 강대호 심완구 김기주
- 서 기 : 진용훈

### 2. 회의

####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18. 11. 16(금) 12: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위원장 김종혁 목사, 서기 최우식 목사로 선정하다.
  - ② 연합행사에 대해서는 서기에게 맡겨 알아보도록 하다.
  - ③ 준비위원회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고, 조직 및 세부계획은 차기 회의 시 논의하기로 하다.

####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18. 11. 27(화) 14: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서기가 계획 중인 연합행사에 대하여 보고하다.
    - 가. 범국민대회(각 종단·시민단체·정부 참여, 3월1일 12시)
    - 나. 범교단대회(3월1일)
    - 다. 기독교 광장집회(서울시청앞)
    - 라. 전국교회 공동 설교문 및 기도문 배포(한교총, 교단장회의 주최)
    - 마. CTS·한교총 연합행사
    - 바.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방문(한교총, CTS)
    - 사. 일본2·8운동기념행사(한교총)
  - ③ 위원을 11인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역사위원장 박창식 목사, 순교자기념사업부장 최효식 목사를 선정하고, 목사 2명, 장로 3명은 서기 최우식 목사에게 맡겨 선정하여 차기 회의 시 확정하기로 가결하다.
  - ④ 기념사업을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고, 대외사업, 조사연구사업, 기념교회 선정 및 유공자 선정 사업, 사적지 지정 사업, 기념행사(기도회, 예배 등)준비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 ⑤ 2019년 2월 중 각 노회별, 속회별, 교회별 기념행사 및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 ⑥ 차기 회의는 12월 5일(수) 오후2시, 팔래스호텔에서 갖기로 하다.

###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8. 12. 5(수) 14:00

☞ 장 소 : 팔래스호텔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위원으로 장봉생 목사, 맹일형 목사, 강대호 장로, 심완구 장로, 김기주 장로를 선정하다.
- ③ 분야별 기념사업준비를 아래와 같이 분담하기로 하다.
  - 가. 대외사업 : 최우식 목사, 강대호 장로
  - 나. 조사연구사업 : 박창식 목사, 맹일형 목사
  - 다. 기념교회 선정 및 유공자 선정 사업 : 최효식 목사, 심완구 장로
  - 라. 사적지 지정사업 : 장봉생 목사, 김기주 장로
  - 마. 기념행사 준비 : 진용훈 목사, 이대봉 장로
- ④ 2019년 2월 24일 주일 초교파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전국교회 공동설교문 제작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서기 최우식 목사에게 맡겨 표준 설교문을 작성하여 한국교회총연합에 제안하기로 하다.
- ⑤ 전국교회 공동설교 시행과 관련하여 차기임원회에 청원하여 확정 후 각 노회에 통보하여 전국교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노회별 기념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회 독려 방법을 연구해보기로 가결하다.
- ⑥ 차기 회의는 12월 17일(월) 오후1시에 갖기로 하다.

###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8. 12. 17(수)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서기 최우식 목사가 한교총의 '3.1운동 100주년 위원회'에서 논의된 회무 내용을 보고하다.
- ③ 3.1운동 교회와 사적지 지정 및 유공자 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1월 3일(목)로 예정된 총회실행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안건 상정하여 허락을 받기로 하다.
- ④ 2월 24일(주일) 오후 4시에 총회산하 모든 교회들이 서울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기로 하되, 장소 및 준비 사항은 위원 진용훈, 맹일형, 장봉생 목사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⑤ 지난 회의 때 결의한 분야별 기념사업준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다.
  - 가. 유공자 선정 사업 : 최효식 목사, 심완구 장로
  - 나. 기념교회 및 사적지 선정사업 : 장봉생 목사, 김기주 장로
- ⑥ 모든 노회에 1월 중순까지 3·1운동 참여 교회 및 사적지와 유공자를 보고토록 하고, 2월 24일 이전까지 각 노회별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시행 보고하도록 공문 지시하기로 하다.
- ⑦ 서기를 최우식 목사에서 진용훈 목사로 변경하기로 하다.
- ⑧ 위원회 명칭을 '3·1운동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총회3·1운동100주년기념사업

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하다.

- ⑨ 차기 회의는 12월 27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8. 12. 27(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②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건과 관련 행사장소를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에서 하기로 하고, 행사명을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로 변경기로 하되, 저녁식사 준비 및 기독교신문 공고 등의 세부적 기획 및 준비는 서기 진용훈 목사, 위원 장봉생 목사, 맹일형 목사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③ 대외사업 준비와 관련하여 위원 최우식 목사가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 준비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보고하다.  
가. 10:00 ~ 11:00 3·1운동 100주년 연합예배(정동제일교회, 총회임원 및 본 위원)  
나. 11:00 ~ 14:00 연합성회(서울 광장)  
다. 14:00 ~ 16:00 범국민대회(광화문 광장)
- ④ 유공자 선정 및 기념교회, 사적지 선정 사업은 3·1운동 100주년을 위한 책자 발간을 목적으로 하되, 출간 시기는 각 노회의 조사 보고 검토 및 위원 박창식 목사와의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하다.
- ⑤ 기념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공문 통보하기로 하다.  
가. 총회산하 모든 교회가 2019년 2월 24일(주일) 대예배 때 초교파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전국 교회 공동 설교문 및 기도문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도록 하되, 필요 시 공동 설교문 및 기도문을 우리 총회에 맞게 수정하여 배포하기로 하다.  
나. 총회산하 노회, 속회, 기관에는 2월 24일(주일) 이전까지 자체적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도록 지시하기로 하다.
- ⑥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시 3·1운동 유공자에 대한 행사 여부는 각 노회의 조사 보고를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하다.
- ⑦ 차기 회의는 2019년 1월 10일(목) 오후 2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19. 1. 10(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② 대외사업과 관련하여 위원 최우식 목사가 한교총의 '한국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개요'를 보고하니, 3월 1일(금) 11시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다.
- ③ 조사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위원 박창식 목사가 3·1운동에 참여한 교회들을 조사하여 2월 중순까지 파악된 교회들을 기념예배 시 발표하고 이후로도 계속 조사하여 총회 전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다.



- ④ ‘한국기독교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세미나’를 3월 21일(목) 본 위원회와 역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다.
- ⑤ 3·1운동 100주년 기념 책자 제작 발간을 위해 위원 박창식 목사와 이대봉 장로에게 맡겨 진행키로 하다.
- ⑥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감사예배’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 ⑦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감사예배’ 시 예배순서, 총회장 설교 요약문, 3·1운동 참여교회 자료 등이 수록된 행사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키로 하다.
- ⑧ 한교총에서 배포하는 ‘한국교회 기념 공동예배’ 설교문과 기도문의 감수 및 예배순서 작성을 서기 진용훈 목사에게 맡겨 전문가를 선정, 위탁키로 하고, 2월 24일 오전 대예배 시 지교회 내에 3·1운동 유공자 및 가족이 있을 경우 예배순서에 소개하는 순서를 넣기로 하다.
- ⑨ ‘한국교회 기념 공동예배’,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감사예배’,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연합성회’, ‘한국기독교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세미나’ 등을 위한 참여 홍보를 위해 총회홈페이지 배너 제작, 1월 22일(화) 기독교신문 5단 광고, 목회자 문자 발송 등을 서기 진용훈 목사, 위원 이대봉 장로에게 맡겨 진행키로 하다.
- ⑩ 차기 회의는 2019년 1월 24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19. 1. 24(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화성시 3·1운동 기독교기념사업단 부단장인 권순웅 목사가 ‘총회 3·1운동 100주년 특별위원회 제안 건’을 보고하고, 총회 3·1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니 우선 보고로만 받기로 하다.
- ③ 대외사업과 관련하여 위원 최우식 목사가 한교총에서 작성한 한국교회 기념 공동예배의 ‘공동 기도문’ 및 ‘설교문’(첨부2)을 제출하니, 서기 진용훈 목사가 전문가를 선정하여 검토를 위탁한 후 예배순서와 함께 2월 초에 총회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하다. 또한 한교총에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연합성회’ 때 우리 총회가 감당해야할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키로 하다.
- ④ 조사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위원 박창식 목사가 총회역사위원회에서 작성한 ‘1919년 3·1운동 본 교단 참여교회(조사증)’를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차기 총회 이전까지 계속 조사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하다.
- ⑤ 유공자 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유공자 선정 기준은 유공자가 당시 장로교 출신이며, 유족이 유공자와 1촌 관계로서 현재 우리 총회 소속 성도임을 확인하다.
- ⑥ 기념교회 및 사적지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총회역사위원회를 통해 3·1운동 참여교회를 일괄 지정하고 ‘3·1운동 참여 교회’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하되, 현판의 가격 및 디자인 등은 총회사무실에 의뢰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키로 하다.
- ⑦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감사예배’와 관련하여 예배 및 행사 순서는 위원장 김종혁 목사와 서기 진용훈 목사에게 맡겨 진행키로 하되, 드려진 현금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키로 하다.

- ⑧ 또한 만세삼창을 위해 종이 태극기를 준비하되 한교총 등에 무상 구입 여부를 조사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3분) 제작(가부 결정 포함) 및 전국교회 배포를 위해 위원 장봉생 목사 및 이대봉 장로에게 맡겨 차기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다.
- ⑨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감사예배 시 참여교회 중 대표 교회 하나와 유공자 1명을 선발하여 현판 및 기념패를 증정하기로 하다.
- ⑩ 3·1운동 100주년 기념관련 노회 및 기관별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시행을 보고하지 않은 노회, 기관, 속회에 대해 재요청 공문을 보내고 연락 확인하기로 하다.
- ⑪ 차기 회의는 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 8) 제8차 회의

☞ 일 시 : 2019. 2. 14(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위원회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 이대봉 장로가 총회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1,900만원을 배정 받았음을 보고하다.
- ③ 한국교회 기념 공동예배와 관련하여 공동기도문, 공동설교문, 예배순서를 확정하여 총회홈페이지에 게재토록하고, 총회산하 모든 목회자에게 2월 24일 주일 오전예배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하기로 하다.
- ④ 공동설교문을 감수 의뢰한 김창훈 교수, 서철원 교수, 박용규 교수, 서창원 교수에게 감수 수고비로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다.
- ⑤ 한교총이 CBS에 제작 의뢰하여 2월 19일(화)에 배포 예정인 홍보동영상에 대해 수령 즉시 모든 위원들이 확인한 후 배포하기로 하다.
- ⑥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감사예배와 관련하여 기념예배 책자 구성 초안을 심의하고 예배순서를 수정하여 받기로 하되, 책자의 제작은 서기 진용훈 목사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⑦ 특별순서로 일본인 목사의 일제 침략에 대한 반성 고백의 시간을 갖되, 3·1운동에 대한 일제 폭압 및 제압리교회 등 한국교회와 관련하여 통역 포함 10분 분량을 요청하기로 하고 내용은 검토하기로 하다. 또한 항공 및 숙박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 ⑧ 현판 및 유공자패 증정과 관련하여 3·1운동 참여교회는 총회역사위원회가 발표한 교회 중 대표를 왕십리교회로, 3·1운동 유공자로는 제35회 총회장인 최재화 목사(유족 : 아들 최성구 장로)로 정하기로 하다.
- ⑨ 현판 제작과 관련하여 시안 및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아크릴마트의 시안 '샘플 4'를 3·1운동 참여 교회 현판으로 선택하기로 하되, 자구 수정하여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감사예배 때 사용하기로 하다.
- ⑩ 현수막 제작 및 태극기 구매는 진행하기로 하고 유공자패 제작은 위원 이대봉 장로에게 맡기기로 하되, 그 외의 기타 준비 사항은 서기 진용훈 목사 및 위원 이대봉 장로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⑪ 총회역사위원회와 공동 주관하는 한국기독교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세미나와 관련하여 위원 박창식 목사의 행사순서 및 계획안 보고를 받되, 총회역사위원회가 요청하는 500만원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이대봉 장로와 박창식 목사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⑫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시행여부에 대한 노회 및 기관별 보고에 대해서는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다.
- 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서 제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3월1일(금) 오전 10시 정동제일교회) 참석 요청을 확인하고, 총회임원 및 본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키로 하다.
- ⑭ 위원 최우식 목사의 한국교회 총무단 보고 및 한교총의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3월1일(금) 오전 11시 시청광장) 참석 요청과 관련하여 위원 최우식 목사에게 맡겨 수도권 지역 교회의 참여를 독려키로 하다.
- ⑮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감사예배 준비 및 진행을 위해서 2월 24일(주일) 오후 3시 30분 서대문교회에서 모이기로 하다.

### 3. 주요사업

#### 1)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감사예배

- (1) 일 시 : 2019. 2. 24(주일) 16:00
- (2) 장 소 :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
- (3) 참석인원 : 약 700여명
- (4) 예배순서 : 첨부1

#### 2) 3·1운동 100주년 공동예배 자료 배포(첨부2)

- (1) 초안작성 : 한국교회총연합
- (2) 내용감수 : 김창훈 교수, 박용규 교수, 서창원 교수, 서철원 교수

#### 3)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 (1) 주 최 : 한국교회총연합
- (2) 일 시 : 2019. 3. 1.(금) 10:00
- (3) 장 소 : 정동제일교회
- (4) 참 석 자 : 총회임원, 총회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

#### 4)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

- (1) 주 최 :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
- (2) 일 시 : 2019. 3. 1.(금) 11:00
- (3) 장 소 : 서울시청 광장
- (4) 참 석 자 : 총회임원, 총회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 수도권 내 총회산하 교인

#### 5) 3·1운동 참여교회 기념현판 제작 및 배포

- (1) 수령교회 및 활동 내역(첨부3)
- (2) 현판 디자인



#### 6) 한국기독교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세미나

- (1) 주 최 : 총회역사위원회와 공동 개최
- (2) 일 시 : 2019. 3. 21.(목) 10:30
- (3) 장 소 : 승동교회(최영태 목사)

### 4. 결산

수입		지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비고
총회예산	19,000,000원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감사예배	5,219,192원	
		순서리플릿 및 헌금봉투 제작	1,554,692원	리플릿, 헌금봉투, 디자인(40만원)
		위원 여비	1,370,000원	총회임원, 임원
		행사 순서비	1,350,000원	일본인 목사, 유족 여비 포함
		현판, 유공자패	358,000원	왕십리·영광대교회, 최재화 목사
		행사진행비	312,000원	행사장소 감사헌금 등
		태극기, 현수막	274,500원	태극기 1000개
		회의비	4,087,600원	총 8회
		현판 제작 및 수여	4,059,000원	총 41교회 × @99,000원
		기념사업 준비	3,500,000원	
		신문광고	2,700,000원	기독신문
		설교 및 기도문 감수	800,000원	교수 4명(첨부2 참고)
		3·1절 행사 참석	840,000원	교단장예배, 범교단대회
		기념세미나 여비	440,000원	한국기독교와 3·1운동 100주년
합계	19,000,000원	합계	18,145,792원	
		잔액	854,208원	



첨부 1.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 순서

인도: 총회서기, 총회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장 김종혁 목사

기원 ..... 다같이  
 신앙고백 ..... 다같이  
 찬송 .....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 다같이  
 기도 ..... 부총회장 강의창 장로  
 성경봉독 ..... 느헤미야 1장 1~11절 | 총회회록서기 진용훈 목사  
 찬양 ..... 서대문 더가족 찬양대  
 설교 ..... 그때처럼 오늘에도 | 총회장 이승희 목사  
 특별기도 ..... 인도자

1. 3·1기독교운동 정신계승을 위해 | 위원 박창식 목사
2.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해 | 위원 맹일형 목사

홍보영상 ..... 다같이  
 봉헌기도 ..... 총회회계 이대봉 장로  
 특별헌금 ..... 특송: 서울노회 장로중창단 | 다같이  
 특별순서 ..... 사와 마사유키(澤正幸) 목사  
 증정식 ..... 총회장 이승희 목사

1. 3·1운동 참여교회 헌관: 왕십리교회
2. 3·1운동 유공자패: 최재화 목사(유족 최성구 장로)

광고 ..... 총회총무 최우식 목사  
 환영사 ..... 위원: 서대문교회 당회장 장봉생 목사  
 축도 .....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  
 애국가제창 ..... 1절 | 다같이  
 삼일절노래제창 ..... 다같이  
 만세삼창 ..... 대한독립 만세! | 다같이

故백은 최재화 목사(1892~1962)는

고양 경상북도 선산군 해평면의 3·1운동을 주동하였으며(4월 3일), 소위 혜성단을 조직하여 다양한 경고문을 발송하였고, 신홍무 관학교 생도를 모집하였으며, 후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1921년 궐석 재판으로 징역 3년을 언도받았다. 후에 목회자로 여러 곳에서 사역하는 중에 1949년 제35회 총회장으로 피선되었다. 1980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첨부 2.

## 3.1운동 100주년 공동예배 자료

초안 : 한국교회총연합

감수 : 총신대 김창훈 교수, 박용규 교수, 서창원 교수, 서철원 교수(가나다순)

## 〈공동 기도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하신 선열들이 있게 하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나라를 사랑했던 선진들처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듯이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민족의 숙원사업인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통일의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고 부국강병을 이룩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민족들을 넉넉히 돕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동북아 국가들이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크게 부흥되게 하시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공동 설교문〉

제목 :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본문 : 이사야 10장 12-21절

(참고 : 로마서 8장 1-11절, 요한복음 7장 25-36절)

1919년 3월 1일 삼일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틀 후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돌려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오늘 삼일운동 백주년 기념 공동예배의 구약 본문과 신약 서신서 본문은 그 월요일과 토요일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설교 본문으로 복음서를 중심에 두어 온 교회의 전통을 따라 이사야 본문에 어울리는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백 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 모아 읽었던 성경 본문 몇 부분을 함께 읽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교만한 민족 즉 악을 행하는 민족을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이 앗수르 곧 앗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앗시리아입니다. 앗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당시 중동 세계를 대부분 차지하고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그 세력을 두고 말한다면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길 만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여 년 전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나름대로 힘 있는 나라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의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년쯤 지난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앗시리아에게 망합니다. 앗시리아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 큼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앗시리아를 시켜서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앗시리아를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앗시리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몹시 교만하고 건방지게 굴었던 것입니다. 이는 13-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3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앗시리아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빠진 것입니다. 그런 앗시리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 앗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또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빼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으스댁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앗시리아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시고 멸망케 하십니다.

백 년 전 3월 3일에 돌렸다는 독립단 통고문을 읽으신 선배 성도들은, 본문의 앗시리아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최고의 민족으로 여겼으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온갖 악한 짓들을 다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왕을 신격화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치절한 패배와 수치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백 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며, 자기들보다 힘없는 나라들을 마구 괴롭히는 나라들과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의 지구상의 악한 권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교묘하게 저지르고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값 주고 산 교회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삼일절 백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시다. **이사야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단지 앗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았습시다. 앗시리아를 벌하신 다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지도 알려 주십니다. **20-21절에서** 이를 말씀합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습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시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못했습시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의지했습시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하기도 했습시다. 그런가 하면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나라를 움직이려 하기도 했습시다. 그래서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 패로 갈라져 서로 다투었습시다. 그러다가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 왕국 유다도 앗시리아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습시다. 그러다가 북왕국이 앗시리아에 망하고 140년이 채 못 되어 남왕국 유다조차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교만하고 악한 앗시리아를 물리치시고 앗시리아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시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습시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시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배달겨례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시다. 그렇게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시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야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한국의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겨례에게, 너희 한반도에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나를 거스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존귀하신 여러분, 해방 이전이든 이후이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겨례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긴 것이 모두 남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해방 이전 상황을 두고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변명할 만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습시다.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 이 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무서운 세력으로 들이닥쳤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날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조차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요?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죄악 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요?

3.1운동 백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철저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했던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조국 분단의 아픔을 당하여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교회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손을 의탁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강력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 시간 구약 본문 마지막 절인 이사야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앗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고 나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귀에는 오히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일절 백주년 기념 공동 예배에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4절). **“육신의 생각”(6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따랐던 것을 다 포기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멀었던 것에서 돌이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섬길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예수님도 결국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30절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도 했고, 3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붙잡혀 모진 고생을 하신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실 수 없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를 똑똑히 알려 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거듭거듭 다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면 됩니다. 그 어떤 죄악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 덕택에 우리 겨레도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온 누리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으로 이러 저리 찢기고 갈라진 겨레가 다시 하나 되어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 온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의 죄악을 뿌리 뽑고, 그야말로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온 힘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19년 삼일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만들어 낸 위대한 기독교 역사요 유산입니다. 독립운동 서명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교회들이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지역,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온 민족을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선도했고, 사회계몽에 앞장섰던 그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영광의 역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 이후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아시아와 세계선교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분열의 역사를 극복하고 다시 연합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희망이 없던 그 시대 민족의 통일을 선물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 민족적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겸손한 고백을 우리 모두 합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우리 모두 민족과 사회를 선도했던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하십시오.

해방 이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인과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비롯하여 온 누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온 누리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첨부 3.

## 1919년 3·1운동 총회산하 참여교회

총회역사위원회 작성

No	교회명	지역	노회	주요인물	독립만세운동 개요	자료근거
1	<b>개복</b> (군산)	전 북 군산시	군 산	김성은 유희순	군산의 3.1운동은 개복교회와 구암교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3월 6일 군산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구암교회 박연세 장로를 중심으로 준비하였다. 하지만 5일 아침에 일경이 교사 박연세, 이두열, 김수영을 연행해 이를 지켜본 학생들이 즉시로 만세운동에 돌입하였다. 교인들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500여명이 되었다. 개복교회 교인 김성은과 유희순은 영명학교에 모여 학생들을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으며,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약 7천매를 복사하고 구한국 국기를 제작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군산개복교회 110년사 p.236-240
2	<b>경산</b> (삼북)	경 북 경산시	경 청	전덕수 서성오 최상원	계성학교 졸업생 전덕수(全德洙)는 삼북교회 서성오 목사와 함께 계성학교 최상원을 찾아 갔는데, 최상원이 서울에서 온 독립선언서를 주면서 경산 만세운동을 권고했다. 3월 1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동지를 포섭하던 중에 정보 누설로 만세운동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전덕수가 일경에 체포되었고 최재학은 옥고를 치렀다.	경산교회100 년사 p.194
3	<b>고현</b>	전 북 익 산	이 리	오덕근	고현교회 오덕근 장로를 중심으로 기독교와 천도교가 연합하여 군내 16개면 전역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봉화시위를 하였으며, 각 면의 소재지와 장터로 운동이 확산되었다. 4월 4일 만세운동은 남전의 사헌부감찰 김내문과 최대진 목사, 문용기, 박영문, 백낙규, 오덕근, 박병렬, 김병수 등의 기독교계 지도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전개되었다. 시위 현장에서 문용기, 박영문, 서공유, 박도현, 장경춘, 이충규 등이 사살되었고 수십 명의 위급환자가 발생했으며, 40-100여명이 연행되었다.	고현교회 95년사 p.64, 주명준, 익산 4.4 만세운동과 남전교회 p.233 익산시독립운동기념사업회 자료.
4	<b>고흥읍</b>	전 남 고흥군	고흥보 성	목치숙 오석주 정환태 신성휴 박만돌	1919년 3월 3일 목치숙, 오석주씨가 평양신학교 입학 을 위해 가던 중 서울에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조선독립을 할 것을 다짐하고 4월 7일 고흥에서 목치숙을	동아일보 1921.7.20. 1923.8.7., 중의일보

No	교회명	지역	노회	주요인물	독립만세운동 개요	자료근거
				한익수 박형순 김상두 황두연 김상원 황기룡 황기연 전성연 조용학 주기철 최봉석 최상림 김정복 선무근 박창규 임원석 등	중심으로 국기 80개를 준비하고 오석주씨가 선언서 100장을 준비하여 조선독립고흥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4월 14일 고흥장터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활동 중 목치숙, 오석주, 한익수가 치안법으로 구속되어 목치숙, 오석주는 6개월 동안 투옥하고 한익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출감 후에도 고흥 전 지역을 중심으로 3.1운동을 전개하다. 목치숙은 1906년 고흥읍교회(목하리)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오석주는 1907년에 설립된 신흥리교회 신자로 시작해 1908년 신평리교회 설립을 이끌었다. 1910년 남양면 주교리교회, 1915년 오천교회와 길두교회, 1918년 유둔리교회, 1920년 대덕리교회, 1921년 관리교회와 내발리교회, 동정리교회(금산), 1922년 송천리교회와 화천리교회, 천등리교회 등 1922년 이전까지 14개의 교회가 설립되는 발전을 가져왔다.	1929.3.25., 고흥읍내 옥하리교회사기(1924),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1928), 밀양박씨은산군파송암공세보(박년호), 전남 순천지역 기독교의 수명과 확산(윤정란)/송실사학 26집
5	광주양림	광 주	빛고을	최흥종 김 철 김 강 최병준 박순애 등	서울에서 김필수 목사가 독립만세운동 건으로 광주 북문안교회 최흥종 장로, 김철(김복현) 집사 등과 논의하고 돌아갔다. 최흥종은 서울 대한문 시위로 체포당하고, 김철이 광주로 와서 남궁혁 장로 집에서 거사를 논의했다. 거사일은 3월 10일로 하고 장소는 광주 큰 장날로 하였다. 광주만세운동은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송일학교, 수피아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조선독립광주신문', '경고 아 이천만 동포', '독립선언서' 등을 교인들이 주도하여 발간하여 전남 각 지역에 배포함으로써 만세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체포된 23명 대다수는 기독교인들이었으며 이들은 4개월에서 3년형을 언도받았다.	양림교회 100년사(1) p.238-242.
6	광주중앙(북문안)	광 주	남광주 전남제 일	최흥종 김 철 남궁혁	북문안교회 최흥종 장로(전도사), 남궁혁 장로, 김철 등의 주모로 3월 10일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부동교 아래에 1천여 명이 집결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3진으로 진행하였는데 수피아와 송일학교 교사 및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3월 13일과 18일에 황상호, 흥덕주, 장호조 등이 전단지 배포하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4월 25일에는 송일학교 학생들 주동으로 만	



No	교회명	지역	노회	주요인물	독립만세운동 개요	자료근거
					세운동을 일으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북문안교회 교인들은 약 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최종 판결자 77명 중 53명이 기독교인으로 수피아와 송일학교 교사 및 학생 그리고 북문안교회 교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관련인물로는 김강, 홍승애, 최영균, 김태열, 서정희, 황상호, 강석봉, 한상길, 최정두 등이 있다.	
7	광주중흥	광 주	전 남		최병준 장로가 3.1운동으로 고난을 겪었다는 간단한 기록이 있다.	광주중흥교회 100년사 p.142
8	구미강동 (진평)	경 북 구미시	경 북	이상백 권영해 이영식 이범성 이내성 등	이상백의 집에서 이영식, 이범성, 이내성 등이 모의하여 3월 12일에 뒷산에서 약 300명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3월 14일에도 200여명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상백 징역 2년, 이내성 1년 6개월, 이영래, 임점석, 임용섭, 박봉술, 박명언, 권영해는 징역 10개월, 이운약, 장상건, 장주서, 서기옥, 임삼선, 박근술, 서천수, 박순석, 김성윤, 박삼봉, 박명(금)출, 장영직, 권경보, 장준현, 김도길, 김삼주, 임동석 등은 6개월 연도를 받아 복역하였다.	구미강동교회 106년사 p.205-208
9	군산구암	전 북 군산시	군산동	박연세 김병수 이두열 김수영 고석주 전세종 양기준 유한중 등	군산3.5독립만세운동은 한강 이남과 호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으로 그 중심에는 구암교회가 있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학생인 김범수로부터 은사인 구암교회 장로이며 영명학교 교사인 박연세에게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후에 구암교회 교인인 이두열, 김수영, 고석주와 영명학교 학생인 전세종, 구암예수병원 직원인 양기준, 유한중 등과 함께 모의하여 3월 6일 군산 서래장날에 거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3월 5일 아침에 일경이 교회, 학교 기숙사, 병원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연행하자 구암교회 청년학생들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영명학교 교사 김윤실은 긴급학생간부회의를 열고 계획을 변경하여 당일 거사하기로 하고 교인들과 영명학교, 뽕본당 여학교 학생들이 함께 만세운동에 돌입하였다. 3월 30일에 구속자 석방을 외치며 만세운동을 다시 일으켜 46명의 주모자들이 검거되어 대구형무소, 경성형무소에 수감되	군산구암교회 보고자료 참조 - 김영만 목사 작성



No	교회명	지역	노회	주요인물	독립만세운동 개요	자료근거
					었다. 특기 사항으로 구암교회 교인이며 영명학교 교사인 문용기는 4월 4일 익산역 광장에서 1만여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하다 일경에 양쪽 팔이 잘리는 등 자상을 입어 순국하였다.	
10	금당	충남 서천군	충청	조남명	3월부터 29일간에 걸쳐 군산선교부, 서천교회, 금당교회로 이동하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참여 인원은 수천으로 추정되며, 관련인물로는 송기면, 유성열, 이근호, 임학규, 송여직, 양재홍, 이동홍, 박재엽, 고시상, 정일창, 이승달, 김인두, 나상중 등이 있다.	정규태, 충남노회사 p.191-193 장로교회 1919년 3.1운동 전수조사 자료집 p.131
11	남정	경북 영덕군	경안	박명방	4월 4일 오후 1시 30분 경 남정면 장사동에서 기독교 교인 및 청년 17명이 장날을 이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장으로 나왔다. 주모자로 판단되는 박명방 외 8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해산당하였다.	장로교회 1919년 3.1운동 전수조사 자료집 p.139
12	대구서문(신정)	대구	대경	김영서 정재순	대구제일교회 이만집 목사, 서문교회 정재순 목사, 남산교회 김태련 조사가 운동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고 3월 8일을 거사일로 정했다. 김영서와 계성학교 교사들은 계성학교 아담스관 지하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3월 8일 대구 큰 장터에 집결하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서문교회 소속 김영서 장로는 2년 6개월, 정재순 목사는 2년형, 정광순, 권희운은 1년 6개월, 이재인은 1년을 언도받았다.	대구서문교회 100년사 p.197-201.
13	대사(대사동)	경북 의성군	경중	이종출 김옥돈 이양준 이복술 권해운	쌍계동교회의 만세운동이 박영화 목사를 통하여 대사동교회로 전파되었다. 3월 13일 주일 예배 후에 영수 이종출, 집사 김옥돈, 이양준, 이복(화)술 등이 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일 오후에 마을 뒷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대사동 운동은 의성군 안평면 일대로 전파되었고 이후의 강력한 의성군의 운동이 계속 이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결과 이호출 3년 언도(2년 복역), 이복술, 박두완 등은 징역 2년, 이종출, 김옥돈, 이봉수는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받아 대구형무소에서 투옥되었다. 특히 이양준 집사는	대사교회100년사 p.164-170



No	교회명	지역	노회	주요인물	독립만세운동 개요	자료근거
					이후 3월 19일 도리원 운동을 주도하다가 총상을 입어 복역하던 중 가출옥했지만 6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권해운 역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3월 19일 사망하였다.	
14	덕봉	경 북 의성군	경 중	김수성 이학술 손문원 김태성 김차쇠	3월 25일 오후 11시경 신평면 덕봉동과 중률동의 교인 약 25명이 덕봉동에 집결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덕봉동의 김수성, 이학술, 손문원, 김태성, 김차쇠 등이 참여하였다.	류시중, 박병원, 김희곤, 국역고등경찰요사, 선인, p.7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 p.384
15	동북 (칠전리)	전 남 화순군	동광주		화순 동북의 독립만세운동은 3월 20일에 일어났다. 오재인을 비롯한 동북학교 학생들이 주동하여 동북 장날인 3월 20일 학교에서 천변리 시장으로 나가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시위는 한천, 춘양, 청풍 등으로 퍼져나갔는데 중심 인물은 기독교인들이었다. 이 독립만세운동으로 칠정리교회는 3년간 큰 핍박을 받았다.	김수진, 한인수, 한국기독교회사(호남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p.242 조선예수교장로회 제8회 회의록 p.114
16	목포새한 (양동)	전 남 목포시	목포서	이경필 서기견	양동교회 이경필 목사, 서기견(서기현), 양경필, 서화일, 양병진, 양인식, 양일식, 최자혜, 이금전, 김보현 등의 교인들이 거사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사본 및 비밀 지하신문, 격문, 독립가 등의 인쇄물을 준비하였고, 태극기는 정명여학교 교사 곽우영, 강석봉의 주도로 교장 유애나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제작하였다. 4월 8일에 이경필 목사와 서기견 장로의 주도로 목포 시가에서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양동교회 서기견은 대형 태극기를 휘두르며 군중을 이끌었는데 이때 일경의 총검에 의해 팔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 결과 이경필을 위시하여 서기현 등 30여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목포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정명여학교 학생들 200여명도 체포되었다	목포새한교회 120년사 p.181-185.

No	교회명	지역	노회	주요인물	독립만세운동 개요	자료근거
					가 100명은 훈방조치 되었다. 이 시위에 참여한 대다수는 5-10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17	반야월 (동호)	대 구	동대구		경산교회와 동사무회하던 서성오 목사가 경산교회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을 보면 반야월교회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반야월교회의 영수 송원재는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맡은 일로 인해 옥살이를 했으며, 류(柳) 씨로 알려진 사람도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한 점이 이런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사료된다.(추후 자료발굴과 연구가 요구됨)	반야월교회 100년사 p.94-95
18	사월	대 구	경 청		3월 9일 사월교회 김기원 목사는 경주제일교회(노동리교회) 박영조 목사와 장로 윤기효, 박문홍 등 교인 5-6명과 거사를 준비했을 뿐 아니라 청년 김성길, 김술용을 포섭하였다. 김무생은 평양승실학교 학생으로 사월교회 초창기 교인인 김경도의 아들이었다. 그는 대구서문교회 정광순 장로, 신명여학교 임봉선, 대구고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구지역 만세운동에 크게 관여하였다. 사월교회의 라상기 역시 계성학교 학생으로 대구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복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처럼 사월교회는 직접적인 만세운동은 없었지만 목사와 교인에 의해 간접적인 참여가 있었다.	사월교회 100년사 p.197-199
19	산운	경 북 의성군	경 신	이태학	“산운, 청로, 이동, 선동 4교회에 시무하던 이태학 조사는 금번 만세로 인하여 방금 구수중인 고로.”	경북노회 제6회 회의록(1919. 6.17.) p.30
20	산정현	서 울	중서울	강규찬 김동원	3월 1일 승덕학교 모임에서 고종황제 서거 추모예배를 드린 강규찬 목사의 설교를 기점으로 평양시내 6개 장로교회 3천여 교우들과 함께 시내를 가두행진하였다. 조만식 장로, 김동원 장로, 김예진 집사, 편하설 선교사 및 교우가 다수 참여하였다.	평양산정현교회(박용규) 강규찬과 평양산정현교회(박용규) 한국기독교사 연구소
21	성주읍 (경산)	경 북 성주군	경 북	유진성 김재곤 홍진수	성주읍교회(당시 경산京山교회)의 3.1운동은 당시 교회 조사(助事)였던 유진성이 여러 지방에서 기독교인들 주도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지역 내의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1919년 4월 2일 성주 장날에	독립운동사 제3권(3.1운동 사, 하권) p.464-468



No	교회명	지역	노회	주요인물	독립만세운동 개요	자료근거
					당시 성주읍교회 뒷산에 위치하고 있는 관제묘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유진성은 그해 2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동포교회의 영수인 오의모, 대가면 옥화동 교회의 영수 홍진수, 그 교회의 조사인 김재곤과 신자인 감학이, 김석규, 김치권, 김상직 등과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하였다. 성주군 참여자들의 재판기록에 따르면 유진성이 지역 교회의 조사, 영수들에게 여러 차례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 일로 인해 김재곤, 홍진수는 징역 1년, 김석규, 감학이, 김상직은 각 징역 8월을 언도받았다.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3.1운동재판기록) p.1465-1468
22	송천	경북 영덕군	경안	정규하	지품면 낙평동교회 김세영 조사가 평양신학교 입학에 가다 서울에서 3.1운동을 경험하고 구세군 참위 권태원과 송천동교회 정규하와 더불어 모의하여 3월 18일 영해읍 성내동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3천 명 이상이 회집하였고 일본주재소가 두 차례나 파괴되는 등 시위가 폭력화로 나타나 일제의 발포로 인해 8명이 순국하고 16명이 부상하였으며 600명이 검거되어 그중 96명이 1차에 재판에 회부되었다. 정규하 7년, 김세영 2년 언도를 받았다.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3.1운동재판기록 p.1376-1434
23	승오 (승오동)	경북 칠곡군	경북	안도수 (안은석)	기독교인으로 북삼면 승오동에서 머슴살이 하던 승오동교회 교인 안도수는 북성동교회 (현 약목교회) 김익시를 승오동에 살던 그의 동생 김익주 집에서 만나 승오동과 북성동의 기독교인들을 모아 약목시장 장날에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제안하고 거사 준비에 들어갔다. 김익시는 박상하, 배일연, 한종호 등 교인에게 안도수의 제의를 설명하고 찬동을 얻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사전 발각되어 3월 14일 약목시장 거사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안도수 징역 10개월, 김익시 8개월, 그 외는 6개월을 언도받아 대구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승오교회100년사 p.157-158 경상북도사기 제6장 독립운동편, p.322.
24	승동	서울	경기	김원벽 차상진	승동교회 청년회장 김원벽(金元璧)을 중심으로 승동교회 1층 기도실에서 전문학교 학생 대표들과 수차례 회합을 가졌으며, 3월 5일에 김원벽, 강기덕을 중심으로 시가행진하다가 체포되었다. 차상진(車相晉) 담임목사는 '12인의 장서'를 작성하여 문성호 집사	승동교회백년사 p.140-152

No	교회명	지역	노회	주요인물	독립만세운동 개요	자료근거
					와 함께 총독부에 제출하였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25	신령	경 북 영천시	경 동	김준운	신령교회의 김준운은 한국이 독립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4월 8일 신령시장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4월 6일 신령교회 허석으로 하여금 시위에 참여할 것과 신령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라고 당부하였다. 김준운과 신령보통학교 교사 박필환의 영향을 받은 20여명의 학생들은 6일 밤 매양동 동쪽 하천가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면내로 행진하려다가 일경에 의해 해산당하고 18명이 검거되었다. 이때 시위 배후로 지목된 김준운도 체포되므로 계획했던 8일 신령시장 만세운동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 일로 김준운은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장로교회 1919년 3.1운동 참여전수조사 자료집 p.177
26	쌍계 (쌍계동)	경 북 의성군	경 중	박영화 박영달 박영신 박상동	쌍계교회 박영화 목사는 괴산동교회 김원휘 조사를 통하여 3.1운동의 소식을 접하고 동생인 박영달, 박영신과 함께 동민 배달근, 배중엽 등이 비밀리에 박영신 가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3월 12일 비안초등학교에서 만세를 부르며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것이 경북지방 최초의 운동이었으며 대대적인 의성군 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박영화 목사 1년 6개월, 박영신은 10개월은 언도받아 박영달과 함께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쌍계교회 100년사 p.176-179
27	약목 (복성동)	경 북 칠곡군	경 북	김익시	3월 11일 김익시는 북삼면 송오동의 기독교 신자 안도수를 동생 김익주 집에서 만나 송오동교회와 복성동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복성동으로 돌아온 김익시는 12일 밤 예배당과 최전화의 집에서 박상하, 한종호, 배일언 등과 모의하고 3월 14일 약목시장 장날에 거사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주모자들이 체포됨으로 약목시장 독립만세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 김익시는 징역 8개월을 언도받았다.	송오교회100 년사 p.157-158 경상북도사기 제6장 독립운동편 p.322.
28	양성	경 북 영덕군	경 동	김석조 정상용		장로교회 1919년 3.1운동 전수조사 자료집(통합교 단) p.181



No	교회명	지역	노회	주요인물	독립만세운동 개요	자료근거
29	<b>연당</b>	경 북 영주시	안 동	강두수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연당교회 설립자인 강두수(姜斗秀, 1878년 1월 22일 생) 영수와 그의 아들 강대은 외 2명이 안동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구전이 있다. 강두수의 손자인 강현원 장로(대구동신교회 은퇴장로)의 증언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이 안동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연당교회사(1908-2016)에서는 정확한 증거만 있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안동교회 자료에 의하면, 안동은 3월 10일 김영옥, 김원진, 이중희, 강대극 등이 예비 검속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추후 자료발굴과 연구가 요구됨)	연당교회사 안동교회80년 사 기독교문화협 회 P.161.
30	<b>영광대 (무령리)</b>	전 남 영광군	전남제 일	위계후	영광보통학교 훈도인 위계후는 1915년부터 무령리교회 조사는 시무하였다. 1919년 친분이 있는 고하 송진우의 연락을 받고 서울에 가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당시 서울에서 공부하던 영광 출신 조철현 등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여 만세운동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영광에 돌아와서 정인영, 김은환, 이병영, 박태엽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위계후는 훈도직에서 파면되었고, 영광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조두현, 조태현 등의 증언에 따르면 위계후는 고경진과 더불어 영광독립만세운동의 정신적 기둥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3월 14일 이후 10차례 시위에 약 7,600 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영광읍교회 90년사 p.76-77
31	<b>완포 (화천)</b>	충 남 서천군	충 남	하중호 송기면 송여직 김인전 임학규	3월 29일에 완포교회, 한명중학교, 서천군 마산면, 한산면의 한산 장날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하중호, 송기면, 송여직, 김인전, 임학규가 참여하였고, 유재남, 이세직, 정재환, 김연배, 임진규, 정세환, 성낙철이 관련되었다. 화천교회 교인 송기면, 이동홍, 임학규가 3.1운동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송기면은 징역 1년 6개월, 임학규는 1년, 이동홍은 5년을 선고받았다.	장로교회 1919년 3.1운동 전수조사 자료집 p.209
32	<b>왕십리</b>	서 울	수 도	김백원	3월 12일 왕십리교회 담임목사 김백원을 중심으로 '12인의 장서'를 발표하여 관련자 전원이 구속되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의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염려하여 김백원 목사를 위시한 12명의 각계 지도자들	왕십리교회 100년사, 말씀 속으로 세상 속으로, p.95-97

No	교회명	지역	노회	주요인물	독립만세운동 개요	자료근거
					이 이를 계승하는 뜻에서 장서를 작성하여 언제까지라도 독립운동을 할 의지를 일본 총독에게 전하고, 또한 군중들이 모인 종로 구 보신각 앞에서 낭독하다 구금되었다. 관련 12인은 김백원, 차상진, 문일평, 조형균, 김극선, 백관형, 유준근, 조재학, 고예진, 명이향, 오덕연이다. 이 결과 김백원은 체포되어 징역 8개월을 언도받았다.	
33	<b>의성 (의성읍)</b>	경 북 의성군	경 중	이규하	이규하 장로는 김천득, 백구문 집사 등을 선동하였다는 죄목과 교회에서 행한 설교 내용이 문제되어 의성경찰서에 구금되어 약 40일 간 고초를 당하였다. 후에도 일경은 이규하 장로를 계속적으로 감시하였다.	의성교회80년사 p.42.
34	<b>익산서두</b>	전 북 익산시	군산남	박병렬 마노덕	익산의 3.1운동은 오산면 남전교회 집사이며 군산상영명학교 교사인 문용기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때 서두교회, 합라교회, 옹포교회, 제석교회, 여산교회, 황화전교회, 선리교회, 금마교회, 신동교회, 고현교회, 이리교회 등의 교인들이 참여하였다. 4월 3일 익산 장날을 기해서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며 만세를 부를 준비를 하였다. 문용기를 선두로 서두교회 김병수는 일경의 칼에 뒷목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으며, 박병렬도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익산경찰서에 수감되었다. 마노덕 선교사는 3.1운동에 참여하여 피해를 입은 교회와 교인들을 순방하였다.	서두교회100년사, p.89-91.
35	<b>전주서문 (전주 서문밖)</b>	전 북 전 주	삼 산	김인전	전주 시내에서 3월 13일부터 5월까지 21회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기독교계 주체는 서문밖교회 김인전 목사였다. 거사를 준비할 때부터 몇 분의 교직자와 교회청년들로 한정하여 독립선언문, 태극기 제작을 진행하였다. 전주 3.1운동은 대부분 신흥학교와 전주 기전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서문밖교회의 최종삼, 김가전도 체포되어 최종삼은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 김인전 목사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다.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p.284-285.
36	<b>진주</b>	경 남 진주시	진 주	김재화 심두섭	서울을 다녀온 김재화, 심두섭 등이 모의하여 3월 18일 진주교회의 타종을 시작으로 1~3만 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21일까지 계속되는 시위에 선교사 어학선생인 한규상, 교회가 운영하는 광림학교 교사 김태동과 악대부인 박성오, 이영규, 김영조,	조선헌병대사령부,조선소요사건상황한규상회고록, 나의 조국 나의 교회 등



No	교회명	지역	노회	주요인물	독립만세운동 개요	자료근거
					천명옥 등이 참여하였다. 재판에 회부된 24명 중에 8명이 교인으로 이들은 6개월에서 3년까지 형이 언도되어 복역하였다.	
37	창길	경 북 의성군	경 중	최달모 김봉수 김선실	대사동교회의 영수 이종출, 집사 김옥돈, 이양준은 대사, 괴산, 마진, 창길의 각 동의 기독교도와 농민 400명을 선동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류시중, 박병원, 김희곤 국제고등경찰요사, p.69.
38	초량	부 산	부 산		“초량교회는 3.1운동의 경남지방의 중심지로 인정되어 일제의 감시가 극심하였다.”라는 초량교회100년사의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정황적인 증거를 가지나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초량교회 근처에 있었던 백산상회는 백산 안희제가 세운 독립운동단체인데, 안희제가 초량교회에서 간부들과 비밀 모임을 가지며 항일운동을 했다는 점이나, 훗날 임시정부의 재무차장이 되었던 초량교회 윤현진 집사가 백산상회의 이름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3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자료에 근거하면 초량교회도 직간접적으로 3.1운동에 관여했다고 사료된다.	초량교회 100년사 p.100-102.
39	초전 (동포동)	경 북 성주군	경 북	오의모	옥화교회 유진성 조사는 거창의 애국지사 오형선 주남고(주남선) 등과 밀회하면서 조선독립을 모의하고 지하 독립신문인 국민해학과 신한별보 등을 등사하여 성주 여러 교회에 배포하였다. 유진성은 4월 2일 성주 장날 기독교인들과 함께 성주읍 경산동 관제모 뒷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을 계기로 시장에서 교인들이 만세를 불렀다. 이 시위에는 초전교회 영수 오의모, 옥화교회 영수 홍진수, 김재곤 조사, 후평교회 이판성 등 여러 교인들이 집결하여 유진성의 만세소리에 시위대는 시내로 밀고 들어갔다. 일경의 발포로 2명의 시위자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7명은 부상을 입었다.	장로교회 1919년 3.1운동 진수조사 자료집(통합과 단) p.187
40	충무 (대화정)	경 남 통영시	경남동	양성숙 문복숙 김순이	충무교회 부설 진명유치원 교사인 양성숙, 문복숙, 김순이 등이 최덕지의 도움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13일에 문복숙의 주도로 통영중앙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18일 이성철, 이봉철 형제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시장에서 만세를 외쳤고, 3월 22일 김상진은 부두정 길야정에 격문을 붙였다. 이 결과 위 3명의 교사는 부산에서 6개월 옥고를 치렀고, 진	충무교회 100년사 p.101-103.



No	교회명	지역	노회	주요인물	독립만세운동 개요	자료근거
					평헌, 권남선, 김형기 1년, 양재원 배익조, 모치전, 강세제, 이학이, 허장완 등이 6개월을 복역하였다. 이학이는 복역 중에 사망하였고, 허장완은 마산 감옥에서 옥사했으며, 강세제는 병보석으로 방면되었지만 3년간 투병하다 사망하였다.	
41	<b>탑리 (대리)</b>	경 북 의성군	경 신	박낙헌	의성군 소문면 대리동 교회의 영수인 박낙헌은 대구에서 사경회에 참석하고 3월 8일 대구의 시위 운동에 참가하였다. 대리동교회의 김군식, 김귀상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박낙헌, 윤용구, 윤영주, 오상룡, 김군식, 김귀상, 김자룡, 신진수 등이 참여하였다.	류시중, 박병원, 김희곤 국역 고등경찰요사 p.70.
42	<b>해평</b>	경 북 구미시	경 북	최재화 박진오	3월 17일에 최재화의 집에서 모의하여 4월 3일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한 대로, 산양동, 송곡동, 금호동 등의 주민들이 해평면 소재지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최재화와 박진오는 주재소 주임을 찾아가 정당한 의사 표출에 희생이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최재화는 선산을 탈출하여 대구에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대구 경북 일대의 공무원들에게 민족의 배신자가 되지 말고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대구 시내 상인들에게는 일본인과의 거래를 끊고 폐접할 것을 여러 차례 경고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백은 최재화 목사 (김남식) p.87-102.
43	<b>효선</b>	경 북 의성군	경 신	박장호	“본 교회 출신 박장호 조사는 3.1운동 때 만세 부르러 교회 데모대로 원정 갔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효선교회 100년의 숨결 p.35.